

4) 가족관

〈그림 II-9〉 성별 결혼에 대한 견해



주 : 1)하는 것이 좋다 = 반드시 해야 한다 + 하는 것이 좋다, 하지 않는 것이 좋다 = 하지 않는 것이 좋다 + 하지 말아야 한다.

자료 : 통계청, 「사회조사」.

- 2012년 -2016년 사이 울산지역 성별에 따른 결혼에 대한 견해를 살펴보면, 결혼을 하는 것이 좋다는 인식은 여성은 56.2%에서 44.5%로 낮아졌고, 남성은 67.0%에서 54.9%로 낮아짐. 결혼을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는 견해는 여성은 38.6%에서 47.6%로 증가했으며, 남성은 경우 29.6%에서 37.4%로 증가했음. 남녀모두에게서 결혼에 대한 견해가 변화함을 알 수 있음.

■ 2018 울산광역시 성인지 통계

〈그림 II-10〉 성별 이혼에 대한 견해



주 : 1)하는 것이 좋다 = 반드시 해야 한다 + 하는 것이 좋다, 하지 않는 것이 좋다 = 하지 않는 것이 좋다 + 하지 말아야 한다.

자료 : 통계청, 「사회조사」.

- 2012년 -2016년 사이 울산지역 성별에 따른 이혼에 대한 견해를 살펴보면, 이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견해는 여성은 42.8%에서 34.1%로 낮아졌으며, 남성은 55.3%에서 41.8%로 낮아졌음. 이혼을 할 수도 있고,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견해에 대해서는 여성은 41.8%에서 44.3%로, 남성은 32.1%에서 36.9%로 증가하고 있음. 이혼은 이유가 있으면 하는 것이 좋다는 견해에 대해서는 여성은 12.7%에서 15.5%증가하였으며, 남성은 8.4%에서 12.6%으로 증가하여 이혼에 대한 태도가 보다 개방적으로 변화하고 있음.

II. 통계요약 및 분석 ▣

〈그림 II-11〉 성별 노부모 부양의 책임에 대한 견해

(단위 : %)



자료 : 통계청, 「사회조사」.

- 2012년-2016년 간 노부모 부양의 책임에 대한 견해는 많은 변화가 있음을 알 수 있는데, 노부모 부양 책임이 가족과 정부, 사회에 있다는 의견은 여성의 경우 57.0%에서 49.5%로 감소하였으며, 남성의 경우 54.5%에서 45.6%로 감소하였음. 또한 노부모 부양책임이 가족에게 있다고 생각한 경우는 여성은 25.7%에서 26.9%로 증가하였으며, 남성의 경우 30.2%에서 32.4%로 증가하였으며, 스스로 책임을 져야한다고 생각하는 경우는 여성은 13.1%에서 20.1%로 증가하였고, 남성은 11.7%에서 20.1%로 증가하였음. 한편 노부모 부양 책임은 정부, 사회에 있다고 생각한 경우는 여성은 4.1%에서 3.4%로 감소하였으며, 남성은 3.6%에서 1.9%로 감소하였음. 대체로 노부모부양책임은 대부분 가족 안에서 해결해야한다는 인식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남.